

# 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 결과?...시·도 상생 다시 기로에

전남도 “이전 약속...다시 거론” 불편

모처럼만의 협력 분위기 악영향 우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통합 여부를 묻는 시민여론 조사결과가 모처럼 찾아온 시·도 상생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도한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이미 무안 이전을 약속한 민간 공항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선 지난 주 이용섭 광주 시장과 이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협약한 시·도 행정통합 논의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18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지난 8일 마무리돼 결과 분석이 시작됐다. 시민 권익위는 10일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 받고, 11일 제21차 전원위원회의와 언론 브리핑을 거쳐 12일 광주시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다.

설문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또는 따로 이전할지 방식과 시기, 이전 사업 주체, 통합 공항 명칭, 이전 사업비 부담 주체 등과 관련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시민 여론조사결과는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이 담보하는 상황에서 민간 공항만 전남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결과가 예측되는 설문을 진행한 것을 놓고 협약을 파기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시민의 뜻인 만큼 (이 시장에게) 시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이번 권고안은 지난 주 이뤄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시·도 통합과는 별개 사안이며, 최종 선택과 정치적 판단은 이 시장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시·도 통합과는 선을 그었다.

예상 시나리오처럼 시민 권익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이행을 반대하는 정책권고를 할 경우 이용섭 시장의 결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시민 권익위 권고에는 이행 강제성이 없지만, 그동안 광주시는 14차례 정책 권고를 모두 수용하거나 이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은 “(시민 권익위) 건의 내용이 오면 시민 의견, 전남도와의 상생, 광주·전남의 번영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지 않게 결정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2018년 8월 2021년까지 광주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협약했으나, 이후 광주에선 군 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 공항 이전도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최고위원회의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대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섭 시장 “GGM, 지역과 상생·소통해야”

경영진에 지역경제 역할 당부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시민의 견제·감시를 거부하고, 지역업체와의 상생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4일자 1면)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의 GGM 경영진에게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9일 광주시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GGM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설립 목적이 일반 영리법인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회대통합형 노사 상생 일자리로, 현재 공장 공정률이 70%에 이르는 등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지역사회로부터 축하와 박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GGM과 지역사회간 일부 오해와 마찰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GGM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시장에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경영진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

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경영은 경영진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립 때부터 노사민정이 공감한 내용”이라며 GGM경영진의 독립경영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다만 “GGM은 광주 노·사·민·정의 대타협에 의해 탄생했고, 광주시가 사실상 1대 주주로 참가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모집 등 GGM 탄생과 운영의 중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민도 우리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GGM은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정부·지자체·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업”이라며 공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GGM 경영진에 대해서 “생산직 직원을 지역 청년들 위주로 채용하고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경제의 현안인 상생 및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영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면서 “지역의 관심과 성원 속에 GGM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당신의 노고에 감사,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

### 바이든, DJ와 서한 교환하며 민주화 지지

김대중도서관 1980년대 편지 공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고받은 편지 2점이 9일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이날 공개한 편지 사료는 1983년 9월 30일 바이든 당선인(당시 상원의원)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1984년 2월 27일 김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편지다.

바이든 당선인은 편지에서 “(한국 민주화를 위한) 당신의 노고에 감사한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연락해달라”며 “당신이 보내준 정보가 유용할 것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82~1985년 미국 망명 기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민주화와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제로 한 자신의 연설문과 기고문을 동봉한 편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바이든 당선인이 보낸 편지는 앞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신이다.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한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한 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84년 바이든 당선인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같은 해 2월 25일 전두환 정권이 정치권 인사 202명에 대해 해금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핵심 주요 인사들에 대해 해금을 하지 않은 채 대외적인 선전 목적에서 단행한 기만적인 조치”라며 회의를 제언하기도 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김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긴밀한 인연을 맺었던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이런 사실을 참조하는 것은 한국 국익 실현에 있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미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1년 8월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 약속하고 있다. 아래는 바이든이 김대중 전대통령에 보낸 편지. /연합뉴스



Online

BIXPO 2020

Energy Transition & Digital Transformation

2020. 11. 2(월) - 11. 11(수), 10일간

www.bixpo.kr

신기술전시관

- 에너지 기업 220社 참가
- 그린뉴딜관, 전력기자재관, 디지털뉴딜관 등 구성

수출상담회

- 중소기업 150社 참가
- 24개국 바이어 100명 이상 유치
- 중소기업 제품 소개, 판매 촉진

발명특허대전

- 전력기자재 및 에너지발명품 소개
- 홈페이지 방문자 온라인 투표

전문컨퍼런스

- 전력연구원 R&D 성과 컨퍼런스
- 발표자, 청취자간 양방향 소통의 라이브 강연
-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 AI, 데이터 분석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

특산물장터

- 광주소재 소상공인 제품 소개
- 전라남도 지역 농산물 판매

일자리박람회

- 에너지밸리 기업, 전시 참가기업, 우수인재 취업기회 제공
- Job Korea 內 전용관 설치

경진대회

- 중소기업 R&D 경진대회
- 에너지 분야 기자재, 신기술 공법, 수입기자재 국산화 개발제품 소개
- 홈페이지 방문자 온라인 투표
- KEPCO 스타트업 경진대회
- 우수 스타트업 선발, 창업자금 추가 지원
- 데이터활용 신서비스개발 경진대회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서비스 개발, 데이터사업 활성화 추진

BIXPO 2019 실적

기업

299社

글로벌 기업 39社

참가인원

28,157名

해외 70國

수출계약

USD 33,221 thou.

총 계약 18件

BIXPO 2020 주요 참가기업

스폰서

PLATINUM

LS ELECTRIC

LS Cable & System

HYUNDAI ELECTRIC

GOLD

KEPCO

KEPCO

KEPCO

KEPCO

SILVER

Industrial Bank of Korea

Kwangju Bank

Wp

SIEMENS

SIEMENS Energy

SK telecom

NOKIA

HIOKI

FLUKE

FLIR

DAEWON

tailhan

3M

AIRBUS

Red Hat

Heavy Industries

OMRON

ABB

ABB

ABB

ABB

PowerTech

ABB

ABB

ABB

ABB

KEPCO Group Companies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